

새경향 91.5.18

우리 한가족

이젠 옛말... '모래성'

오늘날 우리사회의 많은 청소년들은 가정을 '더불어 사는 삶의 공동체'라기보다는 그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곳'으로 인식, 가족공동체의 회복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0년대 이후 급격히 이뤄진 산업화의 과정은 핵가족화란 가족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 가족구성원간 정서적 유대감의 단절 및 부모, 자녀간 대화의 빈곤 현상을 가져왔다.

일터에 뺏겨버린 부모,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대화는 고사하고 오직 '공부해'로 시작해 역시 '공부해'로 끝나는 지겨운 잔소리에 아예 부모와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부모의 따뜻한 충고나 위로가 값비싼 선물보다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간 대화시간의 절대부족과 대화방법의 잘못 등으로 요즘의 가정은 그야말로 '한지붕 세가족'이란 안타까운 현실속에 빠져들어 있다.

의류도매상을 경영하는 부모를 둔 도재형군(19·K고 3년)은 '고아아닌 고아'나 다름없는 자신의 처지가 외롭기 짝이 없다.

넋직한 집엔 하나뿐인 남동생과 자신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 사업상 새벽이른 시간에 일터로 나갔다 밤늦게야 귀가하는 부모님의 얼굴은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두번 마주대하는 정도니 말이다.

그나마 어렵게 마련된 자리도 주로 사업이나 금전적인 문제, 학업성적에 관한 얘기들이 오고가는 바람에 가시방석이 아닐수 없다.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연극에 심취, 청소년극단의 단원으로도 활동해온 도군의 희망학과는 연극영화학과.

결코 돈하고는 거리가 먼 학과를 선택한 도군은 문학과 인생에 대한 자신의 진지한 고민은 항상 뒷전인채 어떡해서든 우수한 성적으로 번듯한 대학에 들어가길 원하는 부모에게 심한 단절감을 느낀다.

"부모님 두분 모두 40~50년대의 혼란된 시절에 태어나 가난속에서 살아오셨기에 부에 대한 집착이 강할것 같다"며 나름대로 부모를 이해하려고노하는 도군이지만 "사람이 돈만 갖고 사는것은 아니지않나"고 항변, 책도 읽고 연극도 감상할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부모도 가져주기를 원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잦은 말다툼으로 불안하다는 조은주양(16·H여고 1년)은 "제게 대

에 관한 것뿐"이라며 "더욱이 '여자는 으레...해야한다'는 식의 고루한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더욱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교회에서 써클활동을 해오면서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갖게되었다는 김동혁군(19·K고 3년)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말대답한다고 야단치며 언성만을 높이는 부모와는 형식적인 대화만을 할뿐이라며 "가정에서조차 민주화가 이뤄지지않으니 사회의 민주화도 요원한게 아니냐"고 제법 어른스럽게 꼬집었다.

김군은 또한 "부모들이 아무쪼록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친구같은 입장에서 자신들과 대화해

전달한다'고 응답한데 비해 자녀는 55.5%에 불과,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 자주 나누는 대화내용은 부모(73.5%)와 청소년(77.7%) 모두 학교생활과 성적문제였는데 앞으로 하고싶은 대화내용은

도시

부모의 경우 현재처럼 학교생활과 성적문제(65.7%), 이성및 친구관계(63.7%), 가정생활(52.6%)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 이성및 친구관계(43.6%)와 진로및 진학문

문(11.5%)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부모는 노력부족(21.5%), 견해의 차이(20%), 적절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10.9%)의 순으로 대답했다.

대화할 시간이 없는 이유로는 청소년이 부모의 직장일 때문(26.6%), 자신의 공부때문(23.3%)이라고 응답한 반면 부모는 서로의 TV·비디오·라디오 청취때문(24%)을 가장 많이 들었고, 직장일(13.6%)이나 늦은 귀가(9.3%)는 비교적 적었다.

가족치료학회 노동두박사는 "바쁘게 돌아가는 경쟁시대에 살다보니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오래 대화를 나누는 일 만큼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대화

해 인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노박사는 이밖에 "대화시 유머의 사용과 미소나 쓰다듬어 주는 등 비언어적 대화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대한YMCA연맹은 '자녀와 대화자리마련 캠페인'을 통해 가족공동체 회복의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했는데 이에 의하면 ▲정기적인 날짜와 시간을 정해 아침식사나 저녁식사를 함께 할 것 ▲가족토론을 생활화 해볼 것 ▲휴일을 가족과 함께 보낼 것 ▲가족이 함께 할수있는 운동이나 놀이를 개발할 것 ▲가족공동의 취미를 가져볼 것 ▲가족독서를 실천해볼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족토론의 주제는 ▲가사일 역할분담내용짜기 ▲아버지의 늦은 귀가, 술 담배 끊기위한 가족협력방안 ▲사회와 가정으로



◇ 오늘날 우리사회의 많은 청소년들은 가정을 '더불어 사는 삶의 공동체'라기 보다는 그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곳'으로 인식 가족공동체의 회복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화단절로 핏줄의식 증발현상 역력 부모 '일터' 자녀 '학업' 각기 따로따로 온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통해 극복 바람직

준다면 집이 더이상 잠자는 곳, 부모는 단지 돈을 주는 사람으로 느껴지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한 YMCA연맹의 '부모와 자녀의 대화'실태조사는 우리나라 부모와 자녀들은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내용과 방법에서 적절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잘 말해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간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모의 99.8%, 청소년의 92.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의견이나 실제 의견이나 감정

제(40.9%)가 많은 반면 학교생활과 성적문제는 31.2%로 가장 적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정도에서는 '노력한다'는 응답이 부모 71.9%, 자녀는 51.4%, '일상생활에 필요한 말만 한다'가 부모 14.7%, 자녀 26%, '일방적인 훈계나 잔소리가 많다'는 부모 8.8%, 자녀 14.8%로 각각 차이를 드러냈다.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않는 이유로는 자녀가 견해의 차이(22.1%), 노력부족(15%), 적절한 방법을 모르기때문(14.2%), 대

요령의 터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공적인 대화를 위해선 속마음과는 정반대로 표현하는 병주고 약주는식의 이중구조적인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채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의 흑백논리적 대화, 무조건 '~하면 안된다'라는 부정적인 대화, 고정관념과 상식에서 벗어나지못한 악순환적인 대화는 되도록 지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기보다는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로 대화를 이끌어가야하며 반복되는 얘기와 하더라도 개인의 가

부터 느끼는 어머니의 소외, 불안감 극복방안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토론과 집안에서 할수있는 생활환경보존운동전개 ▲가족단위의 불우이웃돕기방안등 다양하며 각 가정마다 그때그때 해결해야할 문제를 토의하면 된다.

또한 휴일엔 피로하다고 중일 집에서 잠만 자지말고 일찍 일어나 온가족이 함께 체조나 운동, 대청소를 한다든지 특별요리를 만들어 먹는등지 가족이 함께 영화나 연극을 감상하고 느낌을 주고받는 시간을 마련함이 바람